

한국 개신교 여교역자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서울 2003 년 42 호),

한국 개신교 여교역자

이정숙교수에 따르면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시작된 16 개계 종교개혁 의 산물인 개신교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구원교리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교회의 물량 주의와 성직자주의(clericalism)을 비판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참다운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 했다. 유럽사회에서 개신교의 등장은 단순히 종교계의 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개신교는 사회전반의 개혁을 자극했고 가능하게 했다. 특별히 여성과 관련해서 개신교의 공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이들의 논의에 의하면 르네상스와 휴머니즘과 함께 시작된 여성본성논쟁 (querelle des femmes)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속에서 완성되 어졌다. 여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¹

최근까지도 여성사제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천주교나 다수의 개신교들 은 여성이 안수를 받고 장로와 목사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행위 라고 본다. 예수그리스도는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분명히 혁명적인 말씀과 태도로 여성들을 가 까이 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여성해방 메시지를 여성사제직 인정으로까지 해석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예수님께서 남성으로 오셨다는 점, 예수의 12 제자들이나 70 인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남성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그리고 초대교 회공동체내에서도 여성이 장로나 목사에 해당되었던 직분을 갖도록 헌급하고 있지않다는 것 이다.²

새로운 해석에서는 남성의 자발적인 타락에의 동참을 강조함으로써 특정한 성, 즉 여성은 유혹에 약한 존재이면서 남성을 유혹하는 자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뒤엎고 타락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 즉 보편적인 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³

그는 여자들이 사도직(롬 16:7)과 집사직(딤후 3:11)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롬 16:1; 빌 4:2)라고 소개하고 교회는 남녀가 상호위존되어져 있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주장한다.⁴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차별로서가 아니라 성차이에 근거하여 각 성에 적합한 직무, 즉 남성에게는 제사장을 비롯한 공적인 역할을, 여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역 할을 주었다고 해석한다.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여성들이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활 동하며, 다수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교회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 헤이터는 구약성서에 여성사제 가 없는 것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이해되었던 사 회에서 신분이 낮은 여성에게 제사장직이 열려있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리 와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유대사회에서 여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수 없었다. 그외에도 고대 중동지방의 종교들이 여제사장을 두었

¹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서울 2003 년 42 호), 1

²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서울 2003 년 42 호), 3

³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4

⁴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4

고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에 끝나지 않고 매춘행위 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대교에서 여성을 제사장으로 두지 않는 것은 다종교와의 명확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여성만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지파에게 제한된 세습직이었고, 레위기 21 장에 근거하여 “흠”이 있는 자들도 제외되는 직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여사제 부재를 여성안수 불허의 성서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⁵

성서를 보는 세가지 태도를: 1)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3) 성서가 읽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입장. 어느경우도 성서는 성서가 쓰여진 당시의 맥락 (context)이 있고, 성서를 읽는 우리는 또한 우리 나름의 시대적 맥락(context)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들이정숙 교수는 강조한다. [우리는 모두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성서해석학의 역할에 대해 George Casalis 는 네가지 국면으로 정리한다. 첫 번째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성서가 특정시대에 쓰여진 것이므로 시대문화적 요소가 강한 것들은 현대적 상황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바꾸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성서 본문과 그 의미를 근거없이 고착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성서를 되찾아야한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되 과거의 가치가 현재에도 유용하도록 보존한다. 중요한 것은 성서는 역사성(historicity)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역사성을 가진 개인에 의해 읽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성서 속으로 가지고 가서 성서 속의 상황과 부딪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Vasanthakumar 가 말한대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해석학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⁶

여성안수에 대한 교회사적 이해

로마제국 하에서 출발한 기독교는 그 발생초기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종교인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유대교화는 다른 신흥종교운동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법종교로 규정되어 로마 제국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을 하게 되었다. 4 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종교의 하나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 로마제국 전체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수가 상당히 크다고 알려졌는데 순교자들의 60-70%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로마제국의 국교로 등장하게 된 기독교의 부흥을 종교사회적으로 설명한 Rodney Stark 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내에서 여성들은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대교회의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 ‘집사’, ‘과부’, ‘동정녀’ 등의 직책을 가지고 일했기도 했고, 몬타누스주의 운동에서는 여언자로서 모임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수도승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 저술활동을 통하여 신앙고백이 담긴 글을 남기도 했고,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지독한 박해를 견디고 부흥하게 된 요인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이다. 교회사가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의 제도화와 함께 제한되어졌다고 본다. 수녀원장을 지낸여성, 문서활동을 한 여성들은 있었으나 성직자가 아니었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원칙하에 보조역할을 했을 뿐이었다.⁷

르네쌍스가 시작되면서 부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Christine de Pizan 은 당시 남성작가들의 여성에 대한 묘사가 근본적으로 여성혐오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성서를 인용하면서 여성의 본성, 여성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글들을 내놓았으니

⁵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5.

⁶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6.

⁷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9-10.

Christine 의 작업은 소위 “여성본성논쟁”의 장을 연 것이며 16 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문학적 토론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⁸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계열의 회중교회에서는 1853 년 처음으로 여성(Antoniette Brown)에게 안수를 주었다. 이어서 Camberland 장로교회가 1889 년에 여성안수를 시작했고 계속했다.⁹

논란 중에 시작되었던 여성의 설교나 안수 문제는 20 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범교단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 세기 말, 20 세기초 부터 교회여성들의 선교활동과 단체활동이 적극적인 모습을 갖게 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또 교회들간에 자연스럽게 공공연하게 새로운 여성관으로 발전되었다. 1920 년 이후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여성들의 설교를 인정했고 신학교들 중에는 안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 없이도 여성들을 신학교에 받아들이기도 했다. 2 차대전으로 잠시 주춤했던 여성안수 논의는 1950 년대에 다시 활기를 되찾아 미국연합장로교회가 1956 년에, 미국장로교회가 1964 년에 여성안수를 허락했다. 1920 년에 지역설교목사제를 인정했던 감리교는 1956 년에 여성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1970 년에 루터교회가 여성안수를 시작했다. 미국성공회교회는 1974 년에 11 명의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안수를 받았다. 1976 년에 여성안수를 입법화했다.¹⁰

⁸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11.

⁹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11.

¹⁰ ¹⁰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 12.